

이른 추위에... 방한용품 벌써부터 '불티'

온수 매트·전기요 등 가파른 신장세

유통업체도 앞당겨 난방용품 특별전

이른 추위에 방한용품을 구매하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온수 매트가 인기를 끌고 있는가 하면 겨울 패션용품과 실내용품 찾는 고객들의 발걸음이 잦아지고 있다. 덩달아 백화점 등 유통 가전업체도 특별 기획전을 앞당기는 등 겨울 용품 판매에 불이 붙었다.

6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등 유통 가

500%나 신장했고, 전기요는 물량이 부족해 제품을 추가 생산해 판매 중이다. 링크 머플러 등 패션용품과 털실 내화 등 실내용품도 더 많이 팔렸다.

광주·전남 이마트의 경우 지난 10월부터 11월5일까지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기요와 전기장판의 판매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전기매트는 37.2% 증가를 나타냈다.

수요가 증가하자 각 업체 별로 방한용품 물량을 2배 이상 늘리고 본격 판매에 들어갔다.

광주신세계 백화점은 입동을 하루 앞둔 6일부터 난방용품 특별전을 진

행하고 있다.

이번 특별전은 오는 10일까지 열리며, 건강매트 브랜드인 '파코른' 등이 온수매트와 침구매트 등 10여 종의 매트를 할인 판매한다. 가격은 싱글 사이즈 29만원, 더블사이즈가 33만원 선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역시 브랜드별로 물량을 대거 늘려 잡고, 특별전을 열어 고객을 맞고 있다.

구들장과 스텝보이 등 난방가전 브랜드는 물량을 5배 가량 늘렸으며 장갑과 스타킹 브랜드는 신제품과 함께 저렴한 기획상품을 대거 선보였다.

롯데백화점은 7일부터 '방한용품 특별전'을 열어 이들 제품을 저렴하게 내놓는다. 모고어스 털슬리퍼를 반값 할인해 1만7900원, 장갑과 전기요 등을 3만원대에 판매한다.

김대홍 롯데백화점 광주점 가정팀 팀장은 "최근 난방용품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 매출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고신장하고 있다"며 "온열장판, 전기히터, 환기가 어려운 겨울철 실내공기를 맑게 해주는 에어워셔 등 고객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감 재배 농가 일손돕기 농협광주지역본부(본부장 박태식)와 농가주부모임(회장 박남단) 등 50여명은 지난 6일 광주시 광산구 임곡동 감 재배 농가에서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통해 농업인과 상생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협광주본부 제공>

전기요금 연내 오를듯... 주택용 누진제 조정

이르면 이달 상순 발표

전기요금 이르면 올해 안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전기요금 조정과 관련, 조정 요율이나 시기에 대해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되거나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이미 지난해를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공언한 데다 당정에서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주택용 누진제 조정 논의가 진행된 적이 있어 조만간 전기요금 조정 절차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상순에 발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도 "다음 주중에는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전했다.

발표 형식은 정부 단독으로 인상요율 및 시기를 밝히는 방안과 당정 협

의를 통해 인상안 및 요금체계 개편안을 밝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그동안 수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및 체계 개편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왔다. 국회 차원에서도 공청회 등이 진행됐다.

전기요금은 지난 1월 평균 4.0% 인상됐다. 종별 인상률은 주택용 2.0%, 산업용 4.4%, 일반용 4.6%, 교육용

3.5%, 가로등용 5.0%, 농사용 3.0%, 심야전력 5.0%다.

앞서 전기요금은 2011년 8월에 평균 4.9%, 같은 해 12월에 평균 4.5%, 2012년 8월에 평균 4.9% 인상됐다.

연말 이전에 전기요금이 오르면 최근 3년간 5차례나 요금이 조정되는 셈이다.

산업부가 밝힌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큰 방향은 첫째 요금폭탄을 없애는 것과 둘째 산업용 요금 현실화, 셋

광주경총 '희망 job go!' 전직지원 서비스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유희열)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희망 job go!' 전직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이후 심리적 안정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이 쉽도록 경력관리와 여가 관리, 이력서 클리닝, 창업컨설팅, 취업정보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11~12월 두달간 이력서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광주경총 관계자는 "기업의 자율적인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상황에서 퇴직(예정)인력에 대해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나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기업 및 퇴직(예정)자는 광주경영자총협회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062-654-3460).

/이동훈기자 exian@kwangju.co.kr



안전운행 다짐 6일 경북 상주 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 열린 '2013 금호고속 안전운행 경진대회'에 참가한 무사고 경력 1년 이상의 금호고속 승무사원들이 안전운행을 다짐하고 있다. <금호고속 제공>

광주·전남 고품화 심화 재정 약화 20년후 일부 지자체 지속 불투명

한은 심포지엄서 제기

광주·전남지역은 고품화 심화로 인해 향후 20~30년 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부가 체리마디플라자 광주호텔에서 개최한 '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광주전남의 경제발전 전략'을 주제로 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찬영 전남대 교수와 김지광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기획조사부 부장은 "고령화에 대응한 광주전남지역의 대응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주제발표문에 따르면 전남지역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인 상인 초고령사회가 지난 2010년 이미 진입했고 2026년과 2037년

고령화율이 30%, 40%에 이를 것으로 각각 전망됐다.

이러한 접근법을 이용해 예측한 결과에 의하면, 고품화율이 50%를 상회하는 광주전남지역의 기초 지자체 수가 2030년에는 6개, 2040년에는 전체 기초지자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14개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이 교수 등은 이는 고품화 심화에 따른 산업 및 재정기반의 약화로 향후 기초지자체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차산업(생선)을 기반으로 2차산업(가공)과 3차산업(유통 및 관광)을 연계시키는 6차산업을 활성화한다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과 청년층 유입에도 기여할 것이다"면서 "지방이전 공

공기관과의 산학협력 체결 및 지방대학 경쟁력 제고를 통해 고학력 청년층의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종일, 오갑진 조선대 교수와 박재진 한국은행 경제조사팀 팀장은 "산업 네트워크 분석에 의한 광주전남지역의 고품화 관련 산업정책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지역 고품화 관련 산업전략을 제시했다.

이들은 "광주지역은 부품소재,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과 고품화 관련 산업(주택보수 및 인테리어, 의료 및 보건산업)을, 전남지역은 생물산업(농수산가공품), 음식접업, 오락서비스업과 고품화 관련산업(의약품, 의료 및 보건, 농수산가공품)을 연계한 산업전략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

2013 가사문화권 Green 자전거 한마당

11월 9일 | 토 | 오후 1시 광주 호수생태공원·담양 가사문화권 [접수는 당일 오전 11:30 ~ 12:30분 까지 선착순]

① 자전거사랑 행진 : 5km [비경쟁]
 1.코 스 : 광주호수생태공원 → 충효교 → 가사문학관거리 → 지곡리삼거리 → 서산교 → 매봉로 → 금산교 → 매봉로 → 충효여민이집 → 송강로 → 충효제 → 충효유수소 → 충효왕버들 → 광주호수생태공원
 2.준비물 : 개인 안전장구, 자전거
 * 신세 건강한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선착순 접수합니다. 소정의 기념품을 배부받은 완주자에 한해 지급합니다.

② 건강걷기 : 2.5km [비경쟁]
 1.코 스 : 광주호수생태공원 → 환벽당삼거리 → 환벽당길 → 평도들길 → 광주동초충효분교 → 충효샘길 → 충효왕버들 → 광주호수생태공원
 2.준비물 : 걷기에 적합한 복장
 * 신체 건강한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선착순 접수합니다. 소정의 기념품을 배부받은 완주자에 한해 지급합니다.

③ 백일장대회
 1.대 상 : 초등학생, 중학생 2.부 문 : 운문, 시문
 3.시 상 : 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 (※우수상, 금상 수상자는 소정의 상품이 지급됩니다.)
 4.결과발표 : 2013년 11월 20일(수), 광주일보 지면 발표 5.작품원고 : 현장에서 주최측 배포한 원고지를 사용하여 작성, 제출
 6.주 제 : 세부제목은 행사 당일 현장 발표 7.준 비 물 : 백일장 작품 활동이 가능한 필기도구
 8.유의사항 : 1) 출품된 모든 작품의 판권 및 저작권은 광주일보사에 귀속되며 반환하지 않음.
 2) 본인의 작품이 아니거나 심사대상에 결격 사유가 인정될 시 심사에서 제외됨.

*** 본 행사의 모든 종목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주차장이 협소하니 기급적 대중교통을 이용바랍니다.]**
 * 대중교통 : 충효 187번(광주호수생태공원 하차), 담양운수 225번(한국가사문화관 하차)

주 최 | 광주일보사
 주 관 | 광주광역시시사클러스터연맹 · 광주광역시생활체육회트레킹연합회
 후 원 |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문 의 |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 TEL. 062-220-0541

저축은행 적자 줄고 연체율은 증가

저축은행들의 당기 순손실 규모는 축소됐지만, 연체율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가 깊어지면서 연체율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현재 영업 중인 91개 저축은행의 보고를 기준으로 잠정 집계한 결과, 저축은행의 2013회계연도 1분기(2013년 7월~9

월) 당기 순손실은 960억원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작년 동기의 3236억원보다는 2276억원(70.3%) 줄어든 수준이다.

적자 축소는 부실 저축은행들의 구조조정이 상당 수준 진행됐기 때문으로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1668억원 줄었다. 적자 저축은행 수는 36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2곳)보다 16곳

이 줄었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저축은행의 영업환경 약화로 자산은 줄고 연체율은 높아졌다.

9월 말 저축은행의 총자산은 40조 4000억원으로 6월 말(42조 8000억원)보다 2조 4000억원(5.6%) 줄었다. 이는 자산 운용이 쉽지 않았던 데다 현금과 예치금이 1조 5000억원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연체율은 같은 기간 21.4%에서 23.0%로 높아졌다. /연합뉴스